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돕는다

시설 입소 장애인, 지원주택 이전 기존 시설, 주거서비스 기관 전환 개개인 사생활·자율성 존중 취지

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집단 거주' 했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내 집 살림'을 시작한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시설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10월 중 1개 시설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에 따라 기존 시설 입소 장애인 모두 장애인 지원주택 등으로 이전해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거주시설은 폐지 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바뀐다. 주택으로 옮긴 장애인들은 주거서비스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간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개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 시내 총 43개 장애인 거주시설 중 공모를 통해 올해 1개소, 2021년 1개소를 각각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9월 11일 사업설명회 개최 후 9월 14일~29일 신청을 받아 10월 12일 최종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부 선정위원회를 통해 운영법인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거주시설 전환사업 의지·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시설은 법률·주택·복지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3년 간

전 과정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사업은 법과 제도적 기반이 없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사업이지만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10인 이상 집회금지' 내달 11일까지 연장

서울시, 포장·배달 등 영업제한 해제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금지를 내달 초까지 다시 연장했다. PC방과 학원 등은 집회제한으로 전환했고, 포장·배달 등 영업제한 조치는 해제했다.

서울시는 14일 0시부터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를 이달 27일까지 이어가고, 28일부터 2주간(10월 11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3일 24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8월 12일 성북구 사랑제일

교회발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이 보이자 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8월 30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시는 "고위험시설 집회금지, 다중이용시설 집회제한, 교회 비대면 예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등 연이은 강력한 조치 등에 따라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꺾이는 양상이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2단계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한용수 기자

도봉구에 서울사진미술관... 2023년 개관

국내 최초 사진 중심 공공미술관

140년의 한국 사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설이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조성된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사진 중심 공공미술관인 서울시립 '서울사진미술관'을 2023년 4월 도봉구 창동역 인근 서울광역푸드뱅크 부지에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광역푸드뱅크는 올해 12월 이전 예정이다.

서울사진미술관은 연면적 6402㎡, 지하2층~지상4층 규모로 2021년 4월 착공이 목표다. 140년 한국 사진사를 총망라해 정립한 국내 유일의 미술관이자,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등장한 미디어 세대를 필두로 사진·영상 기반의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이뤄지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건립된다.



서울사진미술관 당선작 내부 투시도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울 동북권에 들어서게 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핵심시설로 조성된다. 특히 인근에 서울아레나(2025년 준공), 인공지능(AI)과 가상·증강현실, 홀로그램 같은 최신 로봇과 학 기술 거점인 '로봇과학관(2022년 준공)'과 문화벨트를 형성해 창동역 일대의 경제·문화 파급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수 기자

"스타필드 안성, 극심한 정체 대비 시급"

평택시,국도 38호선 심한 정체 예상 스타필드 직결램프 개통 후 개점 필요 스타필드 측, 셔틀버스 등 대책 마련

평택시가 '스타필드 안성' 개점에 따른 국도 38호선의 극심한 정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평택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스타필드와 안성시측에 교통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스타필드 안성'은 안성시공도읍 안성IC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판매시설, 쇼핑몰, 영화관, 키즈파크 등 대규모 복합시설물로 판매시설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오는 25일, 전체 쇼핑몰은 내달 7일에 개점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안성'은 '국도38호선'을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주말 약 3만8천대(진입 1만9천대)가 이용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안성IC에서 진입하는 차량 분산을 목적으로 『스타필드 안성 복합시설 신축』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시 안성IC에서 스타필드로 진입하는 직결램프를 개설하도록 심의됐다.



스타필드안성 개점에 따른 인근 38호선 교통체증을 우려하며 14일 평택시 김형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브리핑을 하고있다.

그러나, 직결램프 공사 중 암반 발생으로 개점전에 개통불가(직결램프12월 개설 예정)하여, 평택시에서는 직결램프 개통 후 스타필드를 개점하도록 경기도, 안성시, 스타필드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9월 9일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점한다는 입장에 대해 평택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밝혔다.

'안성IC ~ 스타필드 직결램프'개설 전 스타필드 개점 시 고속도로 이용차량들이 국도 38호선을 통하여 접근함에 따라, 스타필드 좌회전 진입차량과 평안지하차도 직진차량과의 상충으로 국도 38호선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본선까지 교통체증 및 잦은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스타필드 안성' 측에서는 단기적인 교통개선 대책으로 신호수 배치(50명) 및 안성방면 임시주차장을 마련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도 38호선'의 극심한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택시에서는 스타필드측에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안성시와 협조하여 스타필드 개점에 따른 교통 혼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50% 한시적 감면

신청 없이 일괄 적용

파주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한다고 전했다. 부과대상은 부담금 부과기준일(2020.0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는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지난 7월부터 해당 시설물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초에 부과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돼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는 지난해 약 9억1천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약 6억 2천만 원의 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전국 확대

두 번째 국가표준 사례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 된다.

고양시의 '안심 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에 대한 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며,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명부 작성

이나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어려운 QR코드의 단점을 한번에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국가를 넘어 세계적 표준이 된 드라이브 스루형 '안심카 선별진료소'에 이어 '고양 안심 콜 시스템'까지 고양시가 하면 표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로 시민 곁으로 다가서는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4 | 해질 / 18:40

9월 15일 (화) / 음력 : 7월 28일

수도권 날씨 / 26 ~ 19°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7/26, 동두천 17/26, 가평 16/26, 파주 17/26, 서울 19/26, 양평 17/26, 인천 20/25, 수원 19/25, 용인 19/25, 평택 17/26, 백령도 18/2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